

축 사

민족의 정신이 깃들어 흐르는 온 산하에 청명한 기운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풍성한 결실로 행복을 나누는 뜻 깊은 절기에, 동학농민혁명 121주년을 함께 기념하게 되어 반가움과 축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은 한국 근현대사를 결정지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이자 헌신이었습니다. 부패한 사회질서를 옳게 세우고 외세의 침략을 민초의 손으로 물리치겠다는, 나라의 앞날과 후손의 미래를 위한 거룩한 항쟁이었습니다. 시대를 앞선 갑오선열의 애민정신과 그 뜻을 이어오고 계시는 천도교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천도교 교리는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가 간직해야 할 기본가치입니다. 이는 모든 생명의 존엄과 인간의 존귀를 중시하는 불교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람이며, 사람을 하늘처럼 받들어 모시는 사회가 가장 살기 좋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서 사람이 다시 하늘이 되는 사회를 구현하는 일이 무엇보다 큰 사명입니다.

물질주의로 향해가는 사회 흐름에서 이러한 동학농민혁명의 애민, 평등사상은 그 어떤 가르침보다 소중하며, 이는 향후 미래 사회에서 더욱 절실한 가치가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더불어 역사적 진실과 그 의미를 바로 알리기 위해 정성을 담은 오늘 기념식은 소중한 의미로 모두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선조들의 값진 희생을 헛되이 여기지 않고 민족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항상 진력하시는 박남수 교령님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김대곤 이사장님, 그리고 유족회 이기곤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의미가 역사에 바르게 새겨지기까지 오랜 시간동안 여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왔듯이, 앞으로도 선열들의 애민 평등사상이 한결같은 정진과 실천으로 널리 퍼지고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으로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9년 10월 12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동학농민혁명의 의의와 영향

모두 아시다시피 동학농민혁명은 한국 근현대사를 결정지은 역사의 일대 사건이자 봉건적 사회질서를 타파하고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반봉건 반외세를 표방한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중항쟁입니다.

인간평등의 실현, 사회비리의 척결, 외국 침략세력 척결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간 중심의 교리는 시대를 불문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인간 중심의 세계관과 맞닿아 있습니다.

난(亂)이란 이름에서 혁명(革命)이란 이름을 찾기까지 긴 시간동안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